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양상*

황수정**

|| 차례 ||

- I. 머리말
- II. 어촌 계축시 개관
- III. 어촌 계축시 양상
- IV.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어촌은 조선조 중기 명신이자 시인이다. 그는 84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겨서 우리 한시사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어촌이 남긴 22제 24수의 계축시는 관각시의 면모뿐만 아니라 관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림에 제한 제화시으로써의 의미도 탐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먼저 어촌 계축시 개관을 통해, 계축시의 의미와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어촌의 계축시는 동시대 여타의 계축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다양한 관직 등용에 의하여 시제에서도 다방면의 계획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의 계축시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를 통해 각 관청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부각시켰다. 이러한 시작법은 당시 계획의 규모와 함께 모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하였다. 둘째, 어촌의 계축시를 통해 시화(詩畵)와 연계한 풍류를 살펴보았다. 시를 통해 그림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시에서 진솔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바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8908)

(본 논문은 2020년 11월 20일(금) 강릉문화원에서 열린 제11회 어촌 심언광 전국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알 수 있었다. 셋째,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기상이 강조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계획과 그 모습을 담은 계획도(契會圖)에 대한 언급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관료로서의 기상을 호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일을 능숙하게 마치고 계획에서의 정회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았다. 당대 계축시의 흐름 속에서 어촌 계축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주제어: 어촌 심언광, 계축시, 계획, 제화시, 시화, 기상

I. 머리말

심언광(沈彦光, 1487~1540)은 조선조 중기 명신이자 시인이다. 본관은 삼척, 자는 사형(士炯), 호는 어촌(漁村)이다. 그는 84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겨서 우리 한시사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최근에는 강릉시와 강릉문화원을 중심으로 어촌에 대한 연구 발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¹⁾ 이는 향후 어촌 연구의 집대성을 이루는 데 기반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어촌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다방면에서 상당량 이루어지고 있다.²⁾ 그의 한시 연구는 이제 한시 본연의 형

1) 강릉에서는 어촌 심언광의 업적과 유지를 받들어 그를 선양하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강릉문화방송과 함께 2020년 9월에도 어촌 심언광 문학의 밤, 한시 콘서트 행사를 개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강릉문화원을 중심으로 전국 학술세미나를 10회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다. 한 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규명과 연구를 통해 지역과 문화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계속적인 후속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식 연구와 미학적 연구로 더욱 확장될 때라고 본다. 본 연구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촌 한시 중에서 계축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계축시는 관료들의 계회를 중심으로 모임 그림에 제한 시를 말한다. 계축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부분 관료로서의 포부와 자부심, 지속적인 관계 유지 등의 내용이어서 문학성을 기대하기 어렵다³⁾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계축시인 경우 계회를 기념하기 위한 시이기에 기본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부분 관습적인 구성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시를 통해 관료로서의 일상성에 매몰되지 않고 묘사와 시적 기교 등을 드러냈다면 결코 문학성 측면을 가볍게만 볼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촌은 문신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84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긴 시인이다. 따라서 관료로서의 품격과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관각시, 그 중에서 계축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촌은 1507년에 진사시에 합격해서 1537년 파직의 일을 겪기까지 많은 관직에서 관료로서 업무에 충실하였다. 또한 그는 관료 사회의 모임에 대한 기록을 시로써 남겨서 당시 관료 사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남긴 22제 24수의 계축시는 관각시로써의 면모뿐만 아니라 관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림에 제한 제화시⁴⁾로써의 의미도 탐구할 수 있다는

2) 박영주, 박도식 외 10명, 『강릉을 사랑한 선비 어촌 심언광』, 강릉문화원, 2019; 김명준 외,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2, 강릉문화원, 2018; 강지희, 「漁村 沈彦光 詠史詩에 나타난 역사인식과 삶의 지향」, 『漢文古典硏』 28집, 한국한문고전학회, 2014, pp.139-167;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pp.5-33; 정시열, 「漁村 沈彦光의 漢詩 研究-『歸田錄』에 나타난 晩年心理에 대해서」, 『退溪學論集』 2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9, pp.437-465.

3) 박해남,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고찰-신자료 <미원계회도>를 중심으로」,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2, 강릉문화원, 2018, p.190;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5, 한국한시학회, 2000, pp.12-14 참조.

4) 황수정,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 제61회 한국어언문학회 전국학술대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어촌의 시에 나타난 미감과 풍류, 관료로서의 기상, 시에 남기고자 했던 역사적 기록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契의 의미를 살펴보면, 契는 집단성, 결합성을 의미하는 단체 개념으로 이 기본 개념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적 형태 및 기능이 부수되며 단순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목적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 이에 따른 계회도(契會圖) 그림은 대부분 화원에 의해서 그려졌고, 그림 하단에 참석자들의 성명과 직위, 관직 등을 적는 좌목(座目)을 마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른바 계축 형식이라고 한다. 여기에 시를 적어 그림의 내용을 명시화하면서 시정(詩情)을 담는다. 이를 계축시⁶⁾라고 명명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어촌 계축시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먼저 어촌 계축시의 일면을 개관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관료 계회의 경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어촌 계축시의 전체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어촌 계축시의 양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동안 어촌의 계축시 연구는 박해남의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고찰」⁷⁾이 유일하다. 이는 신자료 <미원계회도>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반으로 어촌 계축시 전반의 양상을 규명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의 계축시에 드러난 양상을 밝혀서 어촌 한시 연구의

회, 2020.11.07. p.71 참조.

5) 하영아, 「朝鮮時代の 契會圖 研究: 16,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p.5 참조.

6) 계축은 동갑, 동방(同榜) 또는 같은 관사에 소속된 관원들이 모임을 가지고 이를 기념하여 사실을 적고 각자 지은 시문을 권축(卷軸)으로 만들어 참가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계축시는 상단에 모임 제목을 전서로 쓰고, 중단에 계회도를 그려 넣고, 하단에 참석자의 성명, 직위, 관직명 등을 기록한 계축 형식[두루마리-卷軸]에 초점을 두고 그림에 제한 시를 말한다. 박해남, 앞의 논문, p.180 참조.

7) 박해남, 앞의 논문, pp.179-190.

한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는 어촌과 동시대 적극적으로 작시 활동을 하였던 관료이자 문인들의 계회 및 계축시의 경향도 함께 참고하면서 고찰할 것이다. 이로써 당대 계축시의 흐름 속에서 어촌의 계축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Ⅱ. 어촌 계축시 개관

1. 관료 계회의 의미

조선 초기 관료들의 모임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계회도(契會圖)라고 한다. 계회도는 상단에 계회의 표제를 적어 넣고 중단에는 산수를 배경으로 한 계회 장면을 그려 넣는다. 또한 하단에는 계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관직, 성명, 자, 본관 등]을 관작의 서열에 따라 적어놓는 좌목이 있다. 이러한 형식은 전형적인 계축의 양식으로 그림의 여백이나 하단 부에 당대 명현(名賢)의 시를 적어놓는다. 이 시기의 계회도는 대부분 당대 정치, 경제, 문예를 주도한 관료들의 모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따라서 모임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다. 주로 사간원, 의금부 소속 낭관, 그리고 같은 관청 소속의 동료 모임 등으로 이루어졌다.⁸⁾ 이러한 계축 형식을 중심으로 하여 계회도(契會圖)에 제한 것을 계축시라고 이른다.

계축시는 계회 모임의 특징을 드러내고 같은 직급의 모임에 대한 결속을 강조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회시는 관각시로 분류된다. 큰 틀에서는 관료들 간의 교유의 감성을 드러낸 교유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계회도 그림에 제한 시로써 제화시의 영역에도 들어간다. 이러한 여러 특성이 있는 계축시

8) 하영아, 앞의 논문, p.17.

는 당대 관료 문화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관료 계회의 경향과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김상헌의 호조낭관계회도시(戶曹郎官契會圖詩)의 서(序)를 통해 관료 계회의 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것은 호조의 낭관들이 계 모임을 하는 그림이다. 호조는 옛날의 지관(地官)으로 사도(司徒)의 직이다. 지금은 그 관속 가운데 정랑(正郎)이라고 칭하는 자가 세 사람이고, 좌랑(佐郎)이라고 칭하는 자가 세 사람이다. 조(曹)에는 판적(版籍)과 회계(會計)와 경비(經費) 등의 국(局)이 있어 각각 분담된 사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림으로 그려 남겼는가? 무릇 관직으로 인해 만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갑자기 모였다가는 속히 헤어지며, 헤어진 지 오래된 뒤에는 끝내 완전히 잊어버리는 데 이르고 만다. 이 때문에 계 모임을 하고 또 그림으로 그려 두어서 그 자취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서로 헤어지더라도 서로 간에 잊지 않는 것이니, 이는 두텁게 하는 도이다.⁹⁾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자는 숙도(叔度), 호는 청음(淸陰)·석실산인(石室山人)·서간노인(西澗老人),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조선 중·후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병자, 정묘호란시 척화대신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효종의 묘정에 종사되었다. 어촌보다는 뒤의 인물이지만 그가 남긴 서문의 일단을 통해서 관료 계회의 의미와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다. 청음은 자신의 작품 서문인 <호조낭관계회도시서曹郎官契會圖詩序>에서 호조계회의 특징과 그림을 함께 남기게 된 이유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9) “此戶曹郎官契會之圖也. 曹古地官司徒之職. 今其屬有稱正郎者三人, 佐郎者三人. 曹有版籍會計經費等局, 各有分務. 奚爲而圖也. 凡以官遇者, 率驟合而亟離, 離之久而終於寢忘. 此所以會又圖之, 以存其迹. 雖相離而不相忘, 厚之道也.” 김상헌, 『淸陰集』 제38권, <戶曹郎官契會圖詩序> 중에서

이는 실제 당시 관료의 글을 통해 계획의 경향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청음의 서문 첫머리에는 호조 소속 관직과 업무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획 그림을 남기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관직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갑자기 모였다가는 속히 헤어진다. 점을 들었다. 따라서 헤어진 지 오래되면 끝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것이다. 계모임을 하고 그림을 남겨서 자취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관료 계획(契會)에 대한 선명한 목적과 의미를 알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

交契新如舊	새로 사귀어도 오랜 친구 같고
名途遠更通	장래의 벼슬길 멀고도 더욱 틈없네.
流傳眞勝事	좋은 모임 세상에 길이 전하고자
描畫賴良工	좋은 화공의 손 빌어 그림 그리네.
後會愁萍水	후일 만남 부평초 같을까 시름하여
今詩記始終	지금 시로 모임의 전말 기록하노라.
時時爲披拂	때때로 이 그림 펼쳐서 보면
白首一堂中	일당의 사람 중 백발노인 있으리. ¹⁰⁾

이 작품은 용재 이행(容齋 李荇, 1478~1534)의 시이다. 이행은 조선 중기 문신이자 시인이다. 1495년(연산군1) 증광 문과에 급제하였다. 『성종실록』 편찬에도 참여한 인물이다. 1530년 『동국여지승람』의 신증(新增)을 책임 맡아 끝내고 좌의정이 되었다. 1531년 김안로(金安老)의 전횡을 논박하다가 좌천되었었다. 허균(許筠)은 일찍이 『성수시화(惺叟詩話)』에

10) 이행, 『용재집』 제2권, <刑曹郎官契會圖>, 한국문집총간, 한국고전번역원.

서 “우리나라의 시는 이용재(李容齋)를 제일로 쳐야 할 것이다.” 하였으며,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峯類說)』에서 조선조 시풍(詩風)의 변화를 논하면서 용재를 두고 국초의 시를 대성(大成)한 인물로 평하였다. 현존하는 그의 시문집을 보면, 지방관으로 나가는 벼슬아치를 전별하거나 각종 관조(官曹)의 계회(契會)를 축하할 목적으로 지어진 작품들이 다수 있다.¹¹⁾ 또한 용재는 어촌이 1507년 진사시를 치를 때 시관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강릉에 심언광이 있는데 문장이 출중한 사람이다¹²⁾라고 한 바가 있다.

이 시에서도 계회의 시말을 알 수 있다. 관료가 되어 같은 직책이 계를 하니, 새로 사귀어도 오랜 친구 같다고 하였다. 또한 좋은 화공의 손을 빌어 그림을 그리게 하고 후일의 만남을 기약한다. 그리고 시를 남겨서 모임의 전말을 기록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그리고 계회 그림을 펼쳐보면서 지난 날 계회의 즐거움을 떠올릴 수 있는 자료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그림에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계축시에 담고자 하였다. 이로써 계회의 진정성과 그 맛을 더할 수 있게 된다.

2. 어촌 계축시의 개괄적 의미

어촌의 계축시(契軸詩)는 주로 『어촌집』 권1,2에 실려 있다. 특히 권1에 집중하였다. 이는 환로(宦路)에 들어선 초기부터 경(京), 외직(外職)을 거치는 동안 지은 작품들이다. 어촌의 계축시는 22제 24수이다. 이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1) 이상하, 『용재집』 해설, 한국고전번역원.

12) 심언광, 『어촌집』, 연보 p.39 참조.

〈표1〉 어촌 계축시 분류

문집 권호	형식	시제
漁村集 卷之一	五言律詩 (5首)	題戶曹郎官契簇
漁村集 卷之一		題司饗院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工曹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兵曹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監察契軸
漁村集 卷之一	五言排律 (5首)	題薇垣契會圖
漁村集 卷之一		題河正郎同年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義禁府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宣傳官契軸
漁村集 卷之二		題薇垣契會圖1
漁村集 卷之一	七言律詩 (12首)	題刑曹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監察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漢城府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諫院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部將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大項監役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承旨契軸
漁村集 卷之二		題薇垣契會圖2
漁村集 卷之二		題薇垣契會圖3
漁村集 卷之二		題義禁府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二		題部將契軸
漁村集 卷之六		題安監察繼老驄馬契軸
漁村集 卷之一	七言排律 (2首)	題兵曹郎官契軸
漁村集 卷之一		題侍講院契軸

위 표를 중심으로 어촌의 계축시 양상을 보면, 주로 칠언율시 중심으로 작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계축시 22제 24수 중에 오언절구와 칠언절구의 형식은 없다. 어촌은 전체 작품 수에서도 칠언율시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¹³⁾ 계축시에서도 24수 중 12수를 차지하여 50%에 해당한다. 또

한 오언율시와 오언배율이 각각 5수씩 10수이다. 칠언배율의 시도 2수가 있다.

어촌 계축시의 시제를 보면, 미원계회를 읊은 시가 오언배율로 2수, 육조에 해당하는 호조, 병조, 형조, 공조계회를 읊은 시가 주류를 이룬다. 감찰계회가 『어촌집』 1과 6에 각각 1편씩 실려서 모두 2수다. 부장계회가 2수, 의금부낭관계회가 2수이고, 사옹원, 시강원계회를 읊은 시가 각각 1수이다. 이렇듯 어촌의 계축시는 22제 24수의 수에서 각 계회별 거의 1편씩 계축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원계회시는 같은 시제에 2편 4수이다. 시제면에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거의 없이 다양한 계회의 시를 작성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어촌과 거의 동시대 작가로 자신의 작품 중에서 다양한 계축시의 면모를 보인 시인들의 작품을 함께 살펴보자.

〈표2〉 15~16세기 관료 계회 및 계축시 모음

서거정(1420~1488)	
18 首	題乙丑契飲圖, 秋部郎官契飲圖, 禮曹六郎藏魚洞契飲圖, 題兵曹郎官契飲圖, 題驄馬圖, 題驄馬契軸二首, 工郎讌會圖四首, 題驄馬契軸三首, 題東宮嘉禮都監郎廳契飲圖, 題秋部契飲圖二首, 工曹郎廳讌會圖
이행(1478~1534)	
33 首	司諫院契會圖, 題諫院契會圖, 題司諫院會三清洞圖, 薇院契會圖, 銀臺契會圖, 銀臺契會圖, 霜臺契會圖, 戶曹郎官契會圖, 玉堂學士契會圖, 世子侍講院契會圖, 驄馬契會圖, 金吾契會圖, 刑曹郎官契會圖, 金吾郎官契會圖, 工曹郎官契會圖, 司饗院契會圖, 工郎官契會圖, 漢城府郎官契會圖, 宣傳官契會圖, 宣慰使契會圖, 太常契會圖, 兵曹郎官契會圖, 都總府契會圖, 軍籍廳契會圖, 五衛部將契會圖, 部將契會圖, 軍籍廳契會圖, 宗簿寺契會圖, 國葬都監契會圖, 禮賓寺契會圖, 通禮院契軸, 題禮曹郎官契軸, 題冊禮都監契會圖
신광한(1484~1555)	

- 13) 박영주,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p.133 참조.

25 首	驄馬契會圖, 書驄馬契會圖, 題薇垣契會圖, 題銀臺契會圖, 春坊契會圖爲趙司書趙輔德兄弟作, 題春坊契會圖, 夏官契會圖, 秋官契會圖, 部將契會圖, 書部將契會圖, 五部郎官契會圖, 題畿甸守宰契會圖, 宣傳官契會圖, 金吾契會圖, 題備邊司契會圖并序, 東湖契會圖, 民曹契會圖, 司饗院契會圖, 題司饗院契會圖, 題宗廟增修諸官契會圖, 題孝景殿祀官契會圖, 題六曹承政院中書堂契會圖, 題尙方契圖, 題五部戶籍廳契會圖, 二聖實錄廳契會圖并序
심언광(1487~1540)	
24 首	題戶曹郎官契簇, 題司饗院契軸, 題工曹郎官契軸, 題兵曹郎官契軸, 題監察契軸, 題薇垣契會圖, 題河正郎同年契軸, 題義禁府郎官契軸, 題宣傳官契軸, 題薇垣契會圖 ¹ , 題刑曹郎官契軸, 題監察契軸, 題漢城府郎官契軸, 題諫院契軸, 題部將契軸, 題大項監役官契軸, 題承旨契軸, 題薇垣契會圖 ² , 題薇垣契會圖 ³ , 題義禁府郎官契軸, 題部將契軸, 題安監察繼老驄馬契軸, 題兵曹郎官契軸, 題侍講院契軸
정사룡(1491~1570)	
13 首	題銀臺契軸, 題豐儲倉契軸, 題薇垣契會圖, 京畿迎詔諸官契會圖, 題薇垣契軸, 題典鑑司稷軸, 書同庚稷會圖, 題兵曹郎署契軸, 題刑曹郎署契軸, 題兵曹契會圖, 書金吾郎契軸, 書兵曹郎舍契軸, 書軍籍郎廳契軸

위 표를 보면, 당대 관료들의 작시로 계획 및 계축에 대한 시가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만큼 관료 사회에 있어서 계획의 성행을 알 수 있는 바다. 먼저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자는 강중(剛中)·자원(子元), 호는 사가정(四佳亭) 혹은 정정정(亭亭亭)이다. 6조(曹)의 판서를 두루 지냈고, 1470년 좌찬성(左贊成) 등에 이르렀다. 문장과 글씨에 능하여 조선 전기 대표적인 지식인이다. 그의 계획시 18수 중 총마계축시가 5수에 해당한다. 또한 시제를 계음도(契飲圖)라고도 하여 시제 표현을 다양화하였다. 계획 및 계축시 2수, 3수, 4수 등 연작시가 많다. 그리고 예조 및 동궁가례도에 관한 계획시를 볼 수 있다.

이행(李荇, 1478~1534)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성리학자이며 시인이 다. 본관은 덕수(德水)이고 자는 택지(擇之), 호는 용재(容齋), 별호는 청학도인(靑鶴道人), 어택어수(漁澤漁搜) 등이다. 박은과 함께 해동의 강서파로도 불렸다.¹⁴⁾ 그의 계획시는 총 33수로 시제면에서도 다양한 양상을

면다. 국장도감계회시, 군적청계회도, 선위사계회도 등이 각각 1수씩 있다. 사간원계회시가 총 33수 중 3수에 해당한다. 그리고 금오(金吾)는 의금부의 별칭인데, 2수이다.

신광한(申光漢, 1484~1555)은 조선 전기 문신으로 자는 한지(漢之)·시회(時晦), 호는 낙봉(駱峰)·기재(企齋)이다. 중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1512년에 홍문관 정자가 되었다. 이후 홍문관교리, 시강관 등을 지내고 우찬성을 거쳐서 좌찬성이 되었다.¹⁴⁾ 어촌과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문장과 시를 잘 짓고 청렴한 인물로 꼽힌다. 기재 또한 당시 많은 계회 관련 시를 남겨서 관료 계회의 특징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정사룡(鄭士龍, 1491~1570)의 자는 운경(雲卿), 호는 호음(湖陰)이다. 부사 정광보(鄭光輔)의 아들이며,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조카이다. 1507년(중종 2)에 진사가 되고, 1509년(중종 4)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그의 시는 조직과 단련의 정교함을 보이면서도 웅장한 미감을 발휘하는 것도 많다는 점은 부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오언율시에서 이러한 점이 잘 구현되고 있다.¹⁵⁾ 그의 계축시에서도 다양한 관료 계회의 특징과 멋을 알 수 있다. 육조계회와 사간원, 사헌부계회의 시를 볼 수 있다. 특이한 것은 풍저창(豐儲倉)계회 그림에 제한 시가 있다. 풍저창은 궁중에서 사용하는 쌀 등의 곡물과 종이 등의 출납을 관장하던 곳이다.

이처럼 당대 문신이자 명문장가의 계회 및 계축시를 함께 살펴보았다. 어촌의 계축시는 동시대 여타의 계축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다양한 관직 등용에 의하여 시제 또한 다방면의 계회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위 표를

14) 이재숙,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p.12 참조.

15) 임채명, 「기재 신광한 한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p.8.

16) 이종목, 「湖蘇芝律詩의 文藝美」, 『한국한시연구』 제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p.114.

통해 동시대 계축시 경향을 함께 살펴본다는 것은 어촌의 계축시 규모와 특수성 등을 파악하는 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어촌의 계축시는 시제 면에 있어서도 동시대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거의 ‘계축’, 즉 ‘두루마리 그림에 제한’ 작품이 24수 중 22수이고 계획시로는 2제 4수라는 것이 눈에 띈다. 어촌은 계축시 시제로 거의 일관성 있게 ‘題0000契軸’으로 정하고 있다. 이행과 신헌환의 경우 주로 ‘계획도에 제한하다’라는 제목이 많은 것과 차별화 된다. 정사룡의 경우는 ‘계축’의 제목으로 작품을 쓴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어촌 계축시 24수의 시어 구성을 분류할 수 있다.

〈표3〉 어촌 계축시 24수 중 활용 시어 분류

활용 시어 분류	
관료 모습 형용 시어 (23회)	風標(2회), 風彩(2회), 風範(2회), 英風(2회), 清儒(2회), 俊英, 英絢, 丈夫, 士生, 青驄, 快士, 星郎, 星, 英雄, 玉驄, 士師, 佳士, 郎官
활용 접어 총 수 (17개)	淩淩(2회), 耿耿(2회), 秩秩, 一一, 唱唱, 穆穆, 拍拍, 淨淨, 英英, 皎皎, 紛紛 挺挺, 恩恩, 昭昭, 煌煌
음주 관련 시어 (15회)	樽酒(6회), 綠樽, 二樽, 獻酬, 酒樽, 一杯, 一醉, 相醉, 含杯, 酒匳
그림 관련 시어 (13회)	繪畫(4회), 畫圖(4회), 圖畫(2회), 畫形, 畫膽, 畫
훗날 관련 시어 (8회)	他年(5회), 他日(2회), 他時(1회)
헤어지고 만남의 시어 (7회)	離合(7회)
속마음 표현 관련 시어 (6회)	肝腸(4회), 肝膽(2회)
교유 관련 시어 (6회)	金蘭, 吾友, 金鸞, 善交, 忘形, 雲樹

위 표를 통해 시어 구성을 분류하면, 먼저 어촌이 관료의 모습을 다양한 시어로 형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축시에서는 주로 관료의 모습을 강조하는 시어를 많이 활용한다. 특히 수련에서 시상을 일으키면서 관료 계획에 대한 것을 표현하고 관직 및 관료의 품격을 드러내곤 한다. 어촌의 시에서

는 수련은 물론이고 함련에서도 관료의 기품을 드러내는 시어를 자주 활용하였다. 모두 23회로 수련의 시상이 더욱 확대, 강화되는 효과를 보였다. 즉 그의 계축시에서 풍표(風標), 풍채(風彩), 청준(淸儔), 풍범(風範), 청충(靑驄), 옥충(玉驄) 등 관료의 위용과 기상을 드러내는 시어를 위주로 표현하였다. 그러면서도 관료의 품격을 장부(丈夫), 사생(士生), 쾌사(快士), 가사(佳士) 등의 시어로 다양하게 드러냈다.

또한 어촌은 계축시에서 첩어를 많은 부분에서 활용하였다. 모두 17회 사용함으로써 시의 리듬감에 신경을 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첩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촌이 사용한 첩어는 주로 관료의 기상을 드러내거나 강조하는 역할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능능(淩淩), 경경(耿耿), 정정(淨淨), 영영(英英) 등이 관료의 기품을 드러내고 그 기상을 강조하는 역할로 첩어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 계회의 분위기를 드러내면서 강조하는 시어로는 교교(皎皎)와 분분(紛紛) 등에 지나지 않는다. 주로 관료의 기품과 기상을 드러내는 시어로 활용하면서 시의 리듬감을 더하는 작법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그림[畵]과 음주(飲酒) 관련 시어를 모두 28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계축시가 그림과의 연계성으로 제화시의 일면을 보이는 점과도 일치한다. 즉 계축시를 남기는 이유는 이 그림이 훗날 자신들의 기억에 남아서 다시 볼 때 시와 함께 그 풍류가 전해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이는 그림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시에서 드러낼 수 있는 점을 강조한 부분이다. 또한 그림에 담긴 자신들의 모습은 때로는 훗날 청운의 기틀로 삼을 수도 있으며 권계 및 다짐의 방편으로 삼고자한 면도 있다. 그림 관련 시어로는 13회 사용하였다. 그리고 음주에 대한 시어도 모두 15회 활용하였다. 같은 관료 계회를 통해 속마음을 터놓고 잠시 여유를 즐기는 모습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어촌은 바쁘고 침

예하게 돌아가는 관직 사회에서 동료들 간 모처럼 여유로운 면모를 부각하였다. 또한 곳곳한 기상(氣象)의 관료가 잠시나마 술잔을 나누면서 풍류를 즐기는 점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그림과 음주 관련 시어는 어촌 계축시 거의 모든 작품에 드러나면서 그림과 시를 연계한 제화시로써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시어 분류 측면에서, 교유 부분이 드러난 점도 살펴볼 수 있다. 모두 27회의 시어를 통해 만남과 그리움, 속마음의 진솔함을 드러냈다. 관각시로서 계축시는 이처럼 제화시의 일면뿐만 아니라 동료들 간의 교유의 측면도 강조하고 있다. 어촌은 우선 관료들 간의 소중한 만남을 드러내는 시어로 금란(金蘭), 운수(雲樹) 등 교유의 진정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심금을 터놓는 속마음의 표현인 간장(肝腸), 간담(肝膽) 등의 시어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이합(離合)이라는 시어를 통해 관직이 자주 바뀌어 헤어짐이 잦은 것에 대한 표현에 그리움을 담았다. 어촌은 계축시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훗날에 대한 염원도 실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그의 계축시 양상을 살피면서 더욱 잘 드러나게 될 것이다.

어촌 계축시는 내용 구성면으로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일면을 볼 수 있다. 율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수련은 관청 및 관료의 우수성에 집중해서 묘사하고 있다. 함련은 이를 좀 더 확대하여 관직 및 관료의 특수성을 부각하곤 하였다. 경련에서는 각 계회의 특수성 또는 풍류의 멋 등을 싣곤 하였다. 그리고 미련에서는 계회의 중요성과 불망(不忘)의 기원을 담고 있다. 이는 계축시 일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세부적인 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어촌은 계축시에서 율시를 중심으로 장물인 배울 작품 등을 남기면서 시적 기교면에서도 뛰어남을 알 수 있다. 율시에 있어서 대우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이 잘 드러나기도 한다. 또한 첩어의 사용으로 시에 있어서 리듬감이 잘 드러나기도 하였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관직에 대한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표현 기록에 집중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또한 시와 그림을 연계한 풍류를 담아서 그림에서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시로써 남기는 제화시의 일면도 잘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리고 계축시에서 관료로서의 기상을 드러내면서 예리한 사회 비판적 인식을 담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촌 계축시의 양상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어촌 계축시 양상

1. 시에 의탁한 기록성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를 통해 각 관청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부각시켰다. 계회의 그림에서의 다하지 못하는 기록을 시를 통해 드러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법은 당시 계회의 규모와 함께 모임을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회 및 계축시에서 관료들의 뛰어남을 묘사하고 계회의 성향을 밝히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하여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에서 관직의 특수성 묘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시에서 관청의 주요업무를 부각시키는 문자의 기록성을 활용한 것이다.

列宿郎官會	널리 있는 별처럼 낭관이 모였는데
民曹古度支	호조는 옛날의 탁지라네.
理財非管權	이재는 나라에서 전매하는 것이 아니니
平賦爲公私	공평한 부과는 공과 사를 위함이네.
談笑裁文簿	담소하며 문서를 재량하고

肝腸對酒卮 진심으로 술잔을 마주하네.
 他年看繪畫 훗날 그림을 볼 것 같으면
 準擬角弓詩 각궁시를 준거하려고 할 것이네.¹⁷⁾



(도판1) 〈戶曹郎官契會圖〉
 93.5cm×58cm
 (보물 제870호) 국립중앙박물관

이 시는 어촌이 호조의 낭관들 계모임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열수(列宿)’는 열성으로 별들이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것을 말한다. 마치 ‘진수열장(辰宿列張)’에서 별들이 열을 지어 펼쳐져 있는 모습처럼 호조의 낭관이 열 지어 모인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민조(民曹)는 호조의 다른 이름으로 육조 가운데 호조의 모임에 대한 표현이다. 어촌은 시에서 호조가 곧 예전의 탁지임을 드러내고 있다. 탁지(度支)는 탁용지비(度用支費)의 준말이다. 곧 호구(戶口) 조사와 공부(貢賦)의 출납, 식량과 물류보급 등으로 나라의 전반적인 살림살이 및 관리하는 일을 예스럽게 말이다.

어촌은 이 시에서 계모임의 성향을 드러냈다. 또한 호부[戶部]에서 징세[徵稅]를 담당하는 관리인 호조 낭

17)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戶曹郎官契簇〉, 강릉문화원, 2006, p.65. 이하 어촌 시 번역은 강릉문화원 번역을 위주로 하였고, 필요에 따라 필자가 수정하였다.

관 모임의 특징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함련에서 ‘이재’와 ‘평부’로 대우를 통해 호조의 공정성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어촌은 시에서 관청의 주요업무를 부각시키는 등, 시의 기록성을 활용하고 있다.

경련의 ‘문부(文簿)’는 나중에 상고할 문서와 장부 등을 말한다. 관료 계획은 같은 업무를 보는 동료들끼리의 모임으로 답소에 업무적인 성격을 담는 뜻을 표출하였다. 그럼에도 간장(肝腸)으로 표현되는 깊은 속마음은 마치 구곡간장(九曲肝腸)처럼, 그 끝을 알 수 없어도 한 잔의 술로 허심탄회하게 풀어낸다. 이러한 바가 관료로 같은 직급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는 이유일 것이다.

어촌은 미련에서 훗날 이 계획도가 각궁시의 준거로 남길 바랐다. 각궁시는 『시경』 소아(小雅) <각궁>에, “조화로운 각궁이여 나부끼듯 뒤집혔네. 형제와 인척은 서로 멀리하지 말지어대[駢駢角弓, 翻其反矣 兄弟婚姻, 無胥遠矣].”라는 구절이 있다. 또한 두보가 이백을 생각하며 지은 시, 겨울날 이백을 생각하며[冬日有懷李白] 보면, “적막한 서재 안에서, 아침 내내 홀로 그대를 생각했네. 가수전¹⁸⁾을 다시 찾아 읽어 보니, 각궁시 더욱 잊을 수 없네[寂寞書齋裏 終朝獨爾思 更尋嘉樹傳 不忘角弓詩].”라고 읊은 바가 있다. 두보가 이백에게 형제와 같이 생각하니 서로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이처럼 각궁시는 서로 잊지 말자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다음은 이행의 시를 통해 호조낭관계회의 뜻을 살펴보자.

18) 『春秋左傳』, <昭公二年>, “춘추시대 진(晉)의 한선자(韓宣子)가 노(魯) 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소공(昭公)이 베푼 잔치에서 형제국은 서로 친애해야 한다는 뜻으로 <각궁> 시를 읊었고, 연회가 끝나자 계무자(季武子)의 집에서 주연을 베풀었는데 계씨의 집에 아름다운 나무(嘉樹)가 있어 이를 읊으니, 계무자는 각궁 시와 가수를 칭송한 글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였다.” 즉 가수전은 아름다운 나무에 대해 쓰인 춘추좌전을 말한다.

生財無異道	재물 생산에는 다른 방도 없으니
但勿奪農時	그저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된다네.
果使民恒足	과연 백성을 항상 풍족하게 할 수 있다면
何憂國不肥	나라가 살찌지 않을까를 어찌 근심하겠는가.
官曹稀簿領	호조라 관청에 부서 업무 드물어서
杯酒罄襟期	술잔을 나누며 흥금을 모두 터놓네.
他日靑雲上	훗날 청운에 높이 올랐을 때에
相規亦在茲	서로 규계함이 또한 여기에 있네. ¹⁹⁾

이 작품은 용재 이행의 작품으로 위 어촌의 시처럼 호조낭관의 계회를 주제로 한 것이다. 오언율시이다. 용재는 이 작품에서 호조의 업무를 좀 다른 측면으로 부각하고 있다. 수련에서 백성이 제때에 농사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재물 축적의 방도라고 말하고 있다. 백성을 풍족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라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 어찌 근심하겠는가를 반문하고 있다.

이는 돌려 말하기 표현이다. 호조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술잔을 기울이는 계회 모임에서의 친근함도 강조하였다. 용재는 미련에서 훗날에도 이 날 모임을 기억하여 바르게 정사에 임할 것을 묘사하고 있다. 용재는 시를 통해 흥금을 모두 터놓았던 이 날의 모임이 나중에 더 높은 벼슬에 올랐어도 잘못함이 없이 바르게 정사를 볼 수 있는 기반일 것이라는 표현을 실었다. 즉 나중에 더 높은 관직에 올랐을 때도 이 그림을 보고 규계(規戒)할 것을 담았다. 이처럼 용재는 호조낭관계회의 시정을 비교적 호쾌하게 그리면서도 경계해야 할 바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다시 어촌의 시를 보자.

19) 이행, 『용재집』 제2권, <戶曹郎官契會圖>, 한국고전번역원.

清雋風猷總絕倫	맑은 준결의 풍채는 모두가 뛰어나
煌煌列宿最精神	빛나는 별들처럼 정신이 최상이네.
兵家奇正歸儒術	병가의 기정은 유학에 귀착되고
軍國安危仗搢紳	군국의 안위는 선비에게 의지하네.
身爲衛君擐甲胄	몸은 임금의 보위를 위해 갑주를 걸치고
志因憂世展經綸	뜻은 세상을 걱정하여 경륜을 펼치네.
豈徒千乘堪治賦	어찌 다만 임금의 덕을 운택하게 함에 그치랴
直使三陲已靜塵	곧바로 세 변방에 이미 티끌을 진정시켰네.
了事幾回成大酌	일을 마치고 몇 번이나 큰 술잔으로 마셨던가
開樽時復管良辰	술동이 열며 때로 다시 좋은 때를 만들리라.
他年青眼憑圖畫	훗날 기쁜 눈으로 그림을 본다면
十載肝腸更八人	십년 동안의 진심은 다시 여덟 사람 마음이었지. ²⁰⁾

이 시는 어촌이 육조 가운데 병조계회 두루마리 그림에 쓴 작품이다. 칠언배율로 12구이다. 배율은 율시를 확장하여 더 많은 대우를 필요로 한다. 특히 칠언배율은 대우의 기법을 철저하게 잘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시적 기교면에서도 시인의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 어촌의 계축시 분포를 보면, 오언배율과 칠언배율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의 시 단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 작품에서도 앞의 두 구와 뒤의 두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는 서로 시어의 의미상, 문법구조상 대우구조를 잘 이루고 있다. 출구(出句)와 대구(對句)간에 이루어지는 대우구조가 선명하다.

어촌 계축시의 시작인 1~2구는 그의 다른 계축시와 마찬가지로 모임에 참여한 인물들에 대한 고귀함과 그들의 특출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3~4구부터 7~8구까지는 관직의 특수성을 기록하고 그 지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작법으로 당시 계회에 대한 기

20)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兵曹郎官契軸>

록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근거자료의 모습으로도 읽을 수도 있다. 3구의 기정(奇正)은 병법 용어로 정과 기로 나눌 수 있다. 기(奇)는 매복하였다가 엄습하는 것을 말하고, 정(正)은 마주 진을 쳐서 싸우는 것을 말한다.

병법은 유술(儒術)에 의한 것으로 방법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군국은 군사의 중요정책으로 그 안위가 진신(搢紳)에 의지함을 밝히고 있다. 즉 병법의 방법적인 측면과 그를 운용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드러내면서 병조의 역할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5~6구에서는 몸과 뜻에 대한 대비로 임금과 세상에 대한 임무를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7~8구에서 나라와 임금의 안위를 지키고 보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처럼 어촌은 각 관료 계회 특수성 묘사와 기록을 시적 기교에 담아 형상화하는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촌은 이 외에도 형조 낭관 계회 두루마리 그림에 제하대[題刑曹郎官契軸], 부장 계회 두루마리 그림에 제하대[題部將契軸], 시장원 계회 두루마리 그림에 제하대[題侍講院契軸], 대항 감악관의 계회 두루마리 그림에 제하대[題大項監役官契軸] 등에서 각 관청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부각시켰다. 이는 어촌이 자신의 계축시를 통해 계회의 그림에서의 다하지 못하는 기록의 중요성을 남기기 위한 자신만의 방편으로 활용한 것이다. 즉 이러한 시작법은 당시 계회의 규모와 함께 모임을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회 및 계축시에서 관료들의 뛰어난 점을 묘사하고 계회의 성향을 밝히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하여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에서 관직의 특수성 묘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2. 시화를 연계한 풍류

그림에 제한 시는 일반적으로 화경(畵境)에 대한 묘사와 함께 시인의 시

정(詩情)을 더한다. 이를 통해 그림의 풍격을 그리면서 시의(詩意)를 확대한다. 일반 제화시는 화가의 화의와 함께 시의를 담아서 그림이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을 시로써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부분이 어촌의 계속 시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서 시와 그림이 연계한 멋을 잘 살피볼 수 있다.

清曉天街策玉驄	맑은 새벽 서울 거리에서 옥총마를 채찍질했는데
休明此世幸遭逢	아름답고 밝은 이 세상을 다행히 만났네.
英標挺挺班心秀	영웅의 의표는 곧게 솟아 반심에서 빼어나고
莊色凌凌鐵面同	엄숙한 모습은 뛰어나 철면과 함께하네.
肝膽百年俱耿耿	간담은 평생 모두 뚜렷하기만 한데
煙花一醉但慙慙	봄 경치에 한 번 취하니 단지 바쁘기만 하네.
白頭他日相思地	백발 늙은이들 후일 서로 그리워할 때에
陳迹依然繪畫中	옛 자취를 의연하게 그림 속에서 보겠네. ²¹⁾

이 작품은 어촌이 감찰 계획 두루마리 그림에 제한 시이다. 칠언율시이다. 감찰은 사헌부의 정6품 관직으로 관리들의 비위를 규찰하고,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는 직책이다. 일반적으로 사헌부와 사간원 관리는 왕의 잘못을 비판하고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임무를 수행했기에 그 위엄과 명예를 중요시하였다. 사헌부 소속 감찰은 24명에 해당한다. 조선 초기 지방으로 파견했던 암행어사는 곧 행대감찰에 속한다.²²⁾ 이처럼 감찰은 사헌부 소속으로 사간원, 홍문관원과 함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수련을 보면, 청효(淸曉)라 하여 맑은 새벽의 모습으로 시의 청담함과 함께 감찰의 기상을 돋보이게 하고 있다. 옥총마를 타는 모습은 그 자체가

21)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監察契軸>

22) 박영규, 『조선 관청 기행』, 김영사, 2018, pp.246-247 참조.

엄정함의 표현이다. 총마(驄馬)는 원래 사헌부(司憲府) 감찰을 부르는 별칭이다.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라는 사람은 매우 엄정하였다.²³⁾ 그는 항상 총마를 타고 다녔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그를 총마어사라고 부르며 당시 간소배들은 두려워하고 기피했다고 한다. 이러한 감찰에 대한 표현으로 어촌은 시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휴명(休明)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 긴장감을 일시에 해소하고 있다. 즉 휴명은 뛰어나고 분명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편안한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다행히 감찰의 기능을 많이 발휘하지 않아도 되는 좋은 세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합련에서는 이러한 직책의 인물들이 계획하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이 작품에서 어촌은 특히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다양한 접어를 구사하였고, 이를 대구로 적절하게 활용하는 시적 기교를 보여준다. 합련에서 정정(挺挺)과 능능(淩淩)으로 감찰의 기상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련에서도 경경(耿耿)과 총총(惴惴)으로 그 강개함과 분주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접어는 시의 리듬감과 함께 시의(詩意)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어촌은 계축시에서 계획의 중요성만을 부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적 리듬감을 살리면서 시의 멋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적 기교는 시정(詩情)의 풍류와도 연결되어 나타난다. 계획 그림에 묘사된 인물들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그날의 계획 멋과 풍류를 그림 속에서 다시 기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속마음의 명백함을 경경(耿耿)으로 그리면서 그들과 어울리는 계획 중인 사람들의 바쁜 모습을 총총(惴惴)이라는 접어를 통해 시의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미련에서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아서 그 의연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음을 드러냈다.

23) 『後漢書』卷37, 桓典傳 참조.

이와 같이 시와 그림을 연계하여 그리움과 풍류를 담은 작품들은 어촌의 계축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양상이다. 당시 계회의 모습이 드러난 것으로 어촌이 감찰계회를 그린 오언율시 작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진다. “동이술에 속마음을 비취보니, 그 모습은 그림 속에서처럼 선명하네[肝腸樽酒裏, 形貌畫圖中].”²⁴⁾라고 하였다. 이는 계회의 풍류로 거나해진 모습에서 서로 간에 진솔한 교감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계회 모임의 멋과 풍류가 더욱 강조된 작품들을 볼 수 있다.

邦政周司馬	군정은 주나라 때 사마와 같고
星郎漢散騎	낭관은 한나라 때 산기와 같네.
聲華三語重	명성은 삼어를 중히 여기고
籌畫七兵奇	계책은 칠병을 기특한 것으로 여기네.
樽酒聊今夕	오늘 저녁에는 애오라지 동이 술을 즐기니
情懷且異時	정회가 또한 보통 때와 다르네.
畫形難畫膽	모습은 그리되 속마음을 그리기 어려우니
所貴膽相披	귀한 것은 진심을 서로 펼치는 것이네. ²⁵⁾

이 작품은 병조계회 두루마리에 제한 작품이다. 오언율시로 수련과 함련에서는 병조 직책의 특징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있다. 수련의 방정(邦政)은 총사령관이 지휘하는 군정을 말한다. 또한 성랑(星郎)은 낭관의 별칭이다. 따라서 비유를 통해서 병조의 위용과 기개를 드러내고 있다. 산기(散騎)는 산기상시(散騎常侍)의 준말로 낭사(郎舍) 벼슬을 이르는 말이다. 정3품 벼슬이다. 좌우산기상시의 직책이 있다.

함련의 삼어(三語)는 삼어연(三語掾)이라고도 하는데 학행이나 관작 등

24)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監察契軸> 중 경련

25)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兵曹郎官契軸>

을 이르는 말이다. 물음에 응대하는 훌륭한 말을 뜻하기도 한다. 병조의 명성과 계책의 우월함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호쾌한 계획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격무에 시달리다가 모처럼 마음껏 술자리를 갖는 여유로움을 담고 있다. 따라서 심금을 터놓을 수 있는 연회의 자리에 그 정회 또한 다른 날과 다르다는 표현을 실었다. 그림에서 계획 참석 인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미처 그 속마음까지는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시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림의 부족한 부분을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주요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사옹원 계획에 대한 시이다.

供奉天廚膳	천주의 음식을 만드는 데 이바지하니
周饗古制存	주관에 응인이라는 옛 제도가 있었네.
誠心芹可獻	성심으로 미나리까지 바치고
仁德蛭猶吞	인덕으로는 오히려 거머리조차 삼켰네.
職事惟僚案	직무에는 오직 동료가 제일이니
交情或酒樽	정을 나눌 때는 더러 술자리를 함께하네.
白頭須永好	백발 될 때까지 모름지기 오래 잘 지내며
離合不堪論	이별과 만남은 거론하지 않네. ²⁶⁾

사옹원은 조선시대 임금의 식사나 궁중의 음식 공급에 관한 일을 맡아 보던 관청이다. 왕궁의 음식물을 책임지는 곳으로 사옹의 옹(饗)은 음식을 잘 익힌다는 뜻이다. 새로 나온 음식을 조상 신위에 올리는 일도 담당했다. 여기에는 자문역으로 도제조 1명과 부제조 5명이 있었는데, 그 중 부제조 한명은 승지가 겸임했다.²⁷⁾ 따라서 어촌의 시에서도 천주(天廚)와 옹인(饗

26)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司饗院契軸>

27) 박영규, 『조선 관청 기행』, 김영사, 2018, p.280.

人)으로 사옹원의 역할 및 제도를 담고 있다. 용인은 사옹원에서 여러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 중에 자르고 삶는 일을 관장하는 인물이다. 수련과 함련에서 사옹원의 역할과 의미를 표현하면서 임금께 바치는 음식에 대해 극도로 조심함을 밝히고 있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사옹원에서 같은 직무의 동료가 계회를 통해 풍류를 즐기고 그 인연의 소중함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을 실었다. 일을 맡아보는 입장에서 동료의 중요성과 함께 일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담았다. 이는 계회를 통해 술자리로 회포를 풀면서 정을 나누는 면모를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이 맡은 업무를 더욱 충실히 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기원을 담았다. 그래서 업무로써 함께 하였던 시간의 소중함과 영원한 인연을 기원하고 있다. 따라서 업무를 통한 정과 풍류로 이합을 거론하지 말고 오랜 시간 함께 하는 염원을 형상화하였다. 여기서 기재 신광한의 같은 제목의 시를 살펴볼 수 있다.

尙食官稱古	상식이란 벼슬은 옛 명칭인데
承恩奉御親	은혜를 받아 임금 가까이서 받드네.
張生箴適口	장생은 입에 맞는 음식을 경계하였고
蘇氏對知珍	소동파는 대하면 진미를 알았네.
要試鹽梅節	소금과 매실을 알맞게 조절하여 맛보아서
終看鼎鼐新	결국 재상이 새롭게 조화됨을 볼 것이네.
還將金石契	오히려 금석같은 계회로 굳건하니
不負畫圖人	그림 그린 사람 저버리지 않을 것이네. 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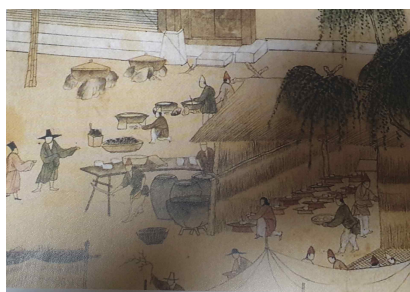
이 작품에서 기재는 오언율시로 사옹원계회와 관련한 것으로 자신만의

28) 신광한, 『企齋集』 卷之七, <司饗院契會圖>

시정을 담은 것을 볼 수 있다. 어촌의 시는 사옹원 관리의 역할과 중요성에 집중하였다면, 기재는 큰 틀에서 비슷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요리하는 기본 재료 등의 언급으로 업무와 역할을 구체화시키기도 하였다. 수련 상구에서는 사옹원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다. 하구에서는 임금을 가까이서 음식으로 받드는 것에 대한 은혜를 표현하고 있다. 기재는 함련에서 장생과 소동과

의 고사를 인용하여 음식에 대한 중요성과 진미를 형용하였다.

경련에서는 음식에 양념이 되는 소금과 매실을 조절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음식의 기본이 되는 양념으로 임금을 음식으로 잘 보좌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또한 경련 하구에 정내(鼎



(도판2) 〈司饗院 朝餐所〉 정경²⁹⁾

鼎)는 재상을 의미한다. 이로써 양념을 잘 섞어서 음식의 맛을 좋게 하듯이 재상의 지위에서 나라를 이상적으로 잘 다스리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 기재는 <사옹원계회도> 시에서 음식 양념의 조화를 통해 관리들의 임금에 대한 보좌를 빗대고 있다.

사옹원과 연관된 음식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관리의 역할을 다시금 묘사하였다. 그리고 굳건한 계회에서의 인연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는 여타의 계축시에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어촌의 계축시에서도 같은 직급의 끈끈한 유대관계는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래서 헤어지고 만나는 이합(離合)을 거론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9) 김대원, 『조선시대 그림이야기』 2, 고요아침, 2018, p.680 재인용.

지금까지 어촌의 감찰계축시, 병조낭관계축시, 사옹원계축시를 통해서 시에 나타난 풍류와 그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그림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시에서 진솔하게 드러내고자 했던 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진정한 만남으로 심금을 터놓을 수 있는 풍류의 시간과 멋을 즐기는 면모를 알 수 있었다. 이는 그림과 연계한 제화시로서의 풍격과도 잘 일치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3. 관료로서의 기상

여기서는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기상을 강조한 작품을 볼 수 있다. 계회와 그 모습을 담은 계회도(契會圖)에 대한 언급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먼저 관료로서의 기상을 호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일을 능숙하게 마치고 계회에서의 정회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담았다. 이는 시적 기교면에서 긴장과 이완의 대비로 더욱 극명한 한가함[閑]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늘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료 관계지만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도 엿볼 수 있다.

風範英英脫等夷	훌륭한 모습은 빼어나 무리를 벗어나고
氷霜皎皎映襟期	꽃꽃한 지조는 깨끗해 흥금을 비추네.
一杯啜茗清心後	한 잔의 차를 마셔 마음을 맑게 하고
四字開筵對面時	네 자로 자리를 열어 얼굴을 마주하네.
白筆可驅狐鼠去	백필은 여우와 쥐 같은 악인을 쫓아버릴 수 있고
丹忠應許日星知	충성은 응당 해와 별이 알 것이네.
小亭樽酒歸圖書	작은 정자에서 술자리 그림에 그려져 있으니
雲樹他年有所思	훗날 친구를 생각하는 그리움이 있으리. ³⁰⁾

30)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諫院契軸>

이 작품은 어촌이 사간원 계회를 묘사한 시이다. 사헌부는 임금에게 간쟁(諫爭)하는 일을 맡아보는 곳이다. 또한 그릇된 정치나 관리들의 잘못을 규탄하는 일을 본다. 간(諫)은 아뢰는 간, 충고할 간으로 사실을 간접적으로 비유하는 풍간, 순화하여 간하는 순간, 그대로 사실을 정면으로 간하는 직간, 시비를 가려 행할 것을 강요하는 쟁간, 목숨까지 걸고 간하는 함간 등이 활용되었다. 그 역할은 늘 빙상(氷霜)한 태도로 한결같은 지조를 갖추는 것이다.



(도판3) 〈夏官契會圖〉
97cm×59cm
(보물869호) 국립중앙박물관

이러한 간원 관료의 풍모를 수련에서 잘 살리고 있다. 뛰어난 풍모를 영영(英英)한 모습으로 드러냈고, 곳곳한 지조는 교교(皎皎)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깨끗하고 깨끗하여 홍금을 비춘다고 형상화하고 있다. 이는 관료의 기품 있는 풍모와 그 기상을 잘 드러낸 것이다.

또한 함련 상구에서는 일배(一杯)와 청심(淸心)으로 맑은 지조를 더욱 청정하게 담고 있다. 하구는 맑은 정신으로 네 자(四字) 앞에 직면하였음을 드러냈다. 네 재[四字]는 곧 4운(四韻)으로, 율시(律詩)를 말하는 것이다. 이로써 청심의 마음으로 율시를 짓는 자리에 대면한 시인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경련에서 어촌은 다시 한 번 더 날카로운 시어

를 통해 순차적으로 시정(詩情)을 이어간다.

경련에서는 공정하고 엄중한 모습으로 백필(白筆)의 글로써 호서(狐鼠),

즉 여우와 쥐 같은 악인을 몰아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사관이 항상 사모에 비녀처럼 꽂고 다녔던 백필처럼 항상 예리한 안목으로 소인배를 가려내고 있음을 그린 것이다. 이러한 충정은 온 세상이 알 것이라는 표현이다.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기상을 담고 있다. 이어지는 미련에서는 계획과 그 모습을 담은 계획도 그림에 대한 언급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늘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료 관계지만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을 담고 있다. 운수는 운수지회(雲樹之懷)의 준말로 친구를 그리는 마음이다. 세상에 대한 바른 안목과 간신배를 축출할 수 있는 관료의 기상을 담았다.

雀鼠紛紛待剗裁	수많은 소인들이 판결을 기다리는데
諸郎風範總佳哉	여러 낭관의 풍모는 모두 아름다웠네.
朝家用法寧非法	조정에서 법을 운용함이 어찌 법이 아니겠는가
刀筆求才亦有才	문장으로 인재를 구해도 인재는 있네.
案上簿書容易了	책상 위 문서 처리 쉽게 마치고
樽前襟抱等閑開	술통 앞에 회포를 한가하게 펼치네.
百年人事常南北	백년의 인사는 늘 남북으로 헤어지는데
到底相思得幾回	결국에는 서로가 몇 번이나 그리워할까. ³¹⁾

이 시는 한성부 낭관의 두루마리 그림에 제한 작품이다. 한성부는 왕궁이 있는 곳이자 군사적, 경제적 요충지였다. 수도를 담당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위와 관계되는 것이므로 중앙 관청으로 인정하고 육조와 동급으로 대우받았다.³²⁾ 어촌은 수련에서 작서(雀鼠)라 하여 참새와 쥐 같은 소인배를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수련 상구에서 소인배가 분분함을 밝히면서 어

31) 심언광, 『漁村集』 卷之一, <題漢城府郎官契軸>

32) 박영규, 앞의 책, p.251 참조.

지러운 세상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그 속에서 낭관은 서릿발의 기상으로 자신의 품모를 갖추고 있음을 묘사하였다. 함련에서는 조정에서 운용하는 법의 정당성을 언급하고 있다. 참새와 쥐 같은 이들이 죄를 짓고 판결을 기다리며 어지럽혀도 정해진 기강대로 처리하는 면모를 드러낸 것이다. 도필(刀筆)은 예전에 중국에서 대나무 조각에서 틀린 글자를 깎아 내던 칼을 이르던 말이다. 이것이 전의되어 문서를 기록하는 일이나 또는 그 기록을 맡은 관원을 말한다. 여기서는 글로써 인재를 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한성부의 담당 업무는 중앙의 인구·가옥·토지·도로·교량·검시 등을 관장하고 규정했다. 이로써 한성부는 형조·의금부와 함께 사법기능을 행사하여 3법사의 하나로도 불렸다. 수련과 함련에서는 한성부의 업무를 그리면서 시적 긴장감을 끌어올렸다. 경련과 미련에서는 한층 여유로운 모습으로 업무를 숙련되게 잘 마치는 모습을 담았다. 관료로서의 기상을 호쾌하게 그려낸 것이다. 일을 능숙하게 마치고 계획에서의 정회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을 표출하였다.

이는 시적 기교면에서 긴장과 이완의 대비로 더욱 극명한 한가함[閑]의 정서를 담고자 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대체로 다음을 기억하거나 불망(不忘)을 약속한다. 여기서는 벼슬을 옮기게 되면 결국은 서로 멀리 떨어지게 되어 만나기 어려워짐을 표출하였다. 즉 헤어짐을 생각하면서 상사(相思)를 떠올리고 있다. 미련에서 시는 끝나지만, 그 시적 여운이 그리움처럼 길게 남는다. 다음은 용재 이행의 같은 제목의 시를 보자.

簿書游刃亦恢恢	문서의 업무 여유롭게 해치우나니
京兆諸郎擢俊才	한성부 낭관들 모두 영준한 인재로세.
吏退便知官事了	아전이 물러감에 관사 마친 줄 알겠고

公餘聊復酒尊開	공무 여가에 애오라지 술잔 기울이네.
靑雲自致應無讓	청운에 스스로 오름은 양보가 없으나
浮世相逢定幾廻	덧없는 세상 서로 만남은 몇 번일런가.
繪畫分明傳勝蹟	그림이 이 좋은 만남 분명히 전할 테니
他時摹索重徘徊	훗날 어루만지며 거듭 배회하겠지. ³³⁾

이 시는 용재의 한성부낭관 계획시이다. 한성부 업무를 마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술잔을 기울이는 계획의 모습을 그렸다. 수련에서는 한성부 낭관들이 뛰어난 인재임을 드러내면서 업무적인 효율성면에서도 거침없음을 표출하였다. 용재는 함련에서 바로 업무를 마감하고 한 잔의 술로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시적 긴장감보다는 느슨한 여유가 시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그런 여유 속에서도 스스로 높은 벼슬에 오르려는 노력은 계속됨을 그리고 있다. 용재는 헤어짐을 염려하고 있다. 다가올 이별에 대한 아쉬움은 계획 그림을 통해 달래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 훗날 이 모임에 대한 그리움은 거듭 서성거리는 모습으로 대변하고 있다. 즉 인생에 대한 아쉬움, 이별한 동료에의 그리움을 ‘중배회(重徘徊)’로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兵家籌畫學孫吳	병가의 계획은 손무와 오기의 방법을 배우는 것이니
稟氣山河作丈夫	산하의 정기 받아 장부가 되었네.
只把韜鈴猶衛國	오직 도검으로 마땅히 나라를 지킬 것이지
寧隨矢旂幸全軀	어찌 시괴를 따르며 요행으로 목숨을 보전할 것인가?
他年勳業歸鍾萬	훗날의 공훈은 종만으로 돌아가니
此日風標上畫圖	이 날의 위풍은 그림 속에 올랐네.
離舍人間俱白首	이합하는 세상에서 모두 백발인데

33) 이행, 『용재집』 제3권, <漢城府郎官契會圖>

誓同鵷鵠義相扶 질친한 친구의 의기로 서로 돕기를 맹세하네.³⁴⁾

이 시는 어촌의 부장 계축 두루마리 그림에 제한 작품이다. 수련에서 부장으로서의 면모는 병법을 익히는 것이고, 또한 산하의 좋은 기운을 받아 대장부의 품격을 갖추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함련에서는 도검(韜鈴)과 시괘(矢旂)의 대를 통해 관료로서의 다짐과 그 기상을 드러내고 있다. 즉 도검은 육도(六韜)와 옥검(玉鈴)의 합칭으로 용병술을 뜻한다. 시괘는 화살과 돌덩이를 뜻한다. 따라서 완전한 병법만이 나라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의미를 실은 것이다. 시괘처럼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요행을 바랄 수 없음을 뜻한다. 관료로 직책에 대한 책임감과 업무의 충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관료로서 의지와 그 기상을 신고자 한 것이다.

미련에서 어촌은 다시 이합하는 세상에 세월만을 보내는 아쉬움을 담았다. 따라서 꾀꾀(鵷鵠)이라는 비익조와 머리를 항상 맞대고 걷는 짐승을 드러냈다. 즉 둘이여야 날 수도 있고, 걸은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마치 부부처럼 서로 사랑과 의기로 뭉치고 도울 것을 다짐하였다. 이는 계축의 특성상 모임의 중요성과 교류하는 인물간의 친목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다. 계축시에서 관료로서의 기상을 드러내고, 때로는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면서 함께 어울리는 동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IV. 맺음말

지금까지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양상을 고찰하였다. 어촌은 조선조 중

34) 심언광, 『漁村集』 卷之二, <題部將契軸>

기 명신이자 시인이다. 그는 840여 수가 넘는 한시를 남겨서 우리 한시사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그동안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촌은 문신으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시인으로서의 역량도 탁월하다. 따라서 관료로서의 품격과 시인으로서의 자질이 동시에 드러날 수 있는 관각시, 그 중에서 계축시에 주목하였다.

어촌은 1507년에 진사시에 합격해서 1537년 파직의 일을 겪기까지 많은 관직에서 관료로서 업무에 충실하였다. 또한 그는 관료 사회의 모임에 대한 기록을 시로써 남겨서 당시 관료 사회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그가 남긴 22제 24수의 계축시는 관각시로의 면모뿐만 아니라 관료들과의 교류, 그리고 그림에 제한 제화시로써의 의미도 탐구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우선 어촌 계축시 개관을 통해, 계축시의 의미와 그 경향을 파악하였다. 계획시 서문을 통해서 관직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대부분 갑자기 모였다가는 속히 헤어진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헤어진 지 오래되면 끝내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것을 알았다. 어촌 계축시는 시적 기교면에서도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읍시에 있어서 대우 기법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이 잘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첩어의 사용으로 시에 있어서 리듬감을 잘 살렸다. 다양한 시어를 활용하여 시의 주제를 강조하고 시적 분위기를 효율적으로 이끌었다. 내용면에 있어서는 관직에 대한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표현 기록에 집중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어촌의 계축시는 동시대 여타의 계축시와 마찬가지로 그의 다양한 관직 등용에 의하여 시제에서도 다방면의 계획 면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동시대 계축시 경향과 함께 어촌 계축시 규모와 양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를 통해 각 관청의 특수성과 업무의 중요성을 상세하게 부각시켰다. 이는 계획 그림에서 다하지 못하는 기록을 시를 통해 드러내기 위한 자신만의 방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작법은 당시 계획의 규모와 함께 모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도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획 및 계축시에서 관료들의 뛰어난 묘사를 계획의 성향을 밝히는 데 치중하는 데 비하여 어촌은 자신의 계축시에서 관직의 특수성 묘사에도 힘을 기울였다. 시를 통해서 각 관청과 관료의 주요업무를 부각시키는 문자의 기록성을 활용한 것이다.

둘째, 어촌의 계축시를 통해 시화와 연계한 풍류를 살펴보았다. 시를 통해 그림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한 속마음을 시에서 진솔하게 묘사하고자 했던 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바쁜 업무 중에도 진정한 만남으로 심금을 터놓을 수 있는 풍류의 시간과 멋을 즐기는 면모를 알 수 있었다. 이는 화의(畵意)를 읽고 시정(詩情)으로 표현하는 제화시으로써의 풍격과도 일치하는 지점이다.

셋째, 관료로서의 자부심과 기상을 강조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계획과 그 모습을 담은 계획도(契會圖)에 대한 언급으로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먼저 관료로서의 기상을 호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일을 능숙하게 마치고 계획에서의 정회는 한결 여유로운 모습으로 담았다. 이는 시적 기교면에서 긴장과 이완의 대비로 더욱 극명한 한가함[閑]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늘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관료의 관계지만 한 번 맺은 인연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움을 실었다. 본고는 어촌과 동시대 적극적으로 작시 활동을 하였던 관료이자 문인들의 계획 및 계축시의 경향도 함께 참고하였다. 이로써 당대 계축시의 흐름 속에서 어촌 계축시 양상을 파악한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이 행, 『용재집』(한국고전번역원).
- 신광한, 『기재집』(한국고전번역원).
- 심언광, 『어촌집』(한국고전번역원).
- 정사룡, 『호음집』(한국고전번역원).
- 김상현, 『청음전집』(한국고전번역원).
- 정향교 외, 『국역 어촌집』, 강릉문화원, 2006.
- 김대원, 『조선시대 그림이야기』 2, 고요아침, 2018.
- 김은정, 「어촌 심언광의 생애와 시세계」, 『한국한시작가연구』 제5집, 한국한시학회, 2000, pp.5-33.
- 김현지, 「朝鮮中期 實景山水畵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영규, 『조선 관청 기행』, 김영사, 2018.
- 박영주, 「어촌 심언광 문학세계 개관」, 『어촌 심언광의 삶과 문학』, 강릉문화원, 2017, pp.128-143.
- 박해남, 「어촌 심언광의 계축시 고찰-신자료 <미원계회도>를 중심으로」, 『어촌 심언광의 문학과 사상』 2, 강릉문화원, 2018, pp.179-190.
- 이재숙, 「용재 이행의 한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종묵, 「湖蘇芝律詩의 文藝美」, 『한국한시연구』 제23집, 한국한시학회, 2015, pp.101-148. (UCI : G704-000619.2015..23.008)
- 윤진영, 「朝鮮時代 契會圖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임채명, 「기재 신광한 한시 연구」, 단국대 박사학위논문, 2004.
- 하영아, 「朝鮮時代의 契會圖 研究: 16,17세기 作品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2.
- 황수정, 「〈군산이우도첩〉의 제작 경위와 의미」, 제61회 한국언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2020.11.07. pp.61-78.

Abstract

The Aspect of Eauchon Sim Un-Gwang's Gyechuksi

Hwang, Su-jeong

This study examines the aspects of *Gyechuksi* by Eauchon Sim Un-Gwang, a famous government officer and poet in the middle Joseon period. He was an outstanding poet and civil servant and was thought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history of Chinese poetry, having written more than 840 poems. This study focuses on Gwangaksi, especially *Gyechuksi*, where his dignity and quality as a government officer and poet are simultaneously revealed. Twenty-four pieces of *Gyechuksi* including twenty-two themes can be used for investigating the aspect of An investigation of the meaning of Gyechuksi by defining Eauchon's *Gyechuksi*, reveals that they were written to honor meetings of government officers based on the introduction of Gyehois. Like other Gyechuksi, Eauchon's showed the diverse aspects of Gyehois as he was appointed to diverse government posts. This study also identifies the composition and aspects of *Gyechuksi* as follows:

First, Eauchon emphasized the speciality of each government office and the importance of official service in detail, including the meaning of sizes and meetings of Gyehoi at that time. Second, he spoke of poetry and painting, discovering that he intended to express through poetry what he could not express in painting. He also enjoyed true and open-minded friendship in spite of his busy service. Third, *Gyechuksi* emphasized his pride and animated spirit as a government officer, describing the satisfaction of the meetings and good service, but hoping for something better in the future. In identifying the aspects of *Gyechuksi* by Eauchon, this study offers important information about the author and his time.

Key Word : Eauchon Sim Un-Gwang, Gyechuksi, meetings, Jehwasi, poetry
and painting, spirit

황수정

소속 :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56260616@hanmail.net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5일 투고되어
2020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0년 12월 18일 게재 확정됨.